

광주 떠나는 美패트리어트 부대

부대 배치서 철수까지

“反美” 못 버티고 2년만에 짐 싸

합참 요구로 2004년 2개중대 450명 주둔 시민단체 등 1년6개월 넘도록 철수 시위

미군 패트리어트 부대의 광주 배치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이라는 우려적절 끝에 지난 2004년 11월 30일 마무리됐다. 같은 해 10월 1일을 전후해 패트리어트 부대 선발대 40여명이 광주에 도착한 데 이어, 군용 수송기와 차량을 통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16기가 광주공항에 도착했다.

광주공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는 패트리어트 3(PAC III) 미사일 2개 포대로, 운용요원 400명과 본부 요원 50명 등 총 450명의 병력이 배치됐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광주공항에 배치된 것은 지난 2003년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때 합참이 광주비행장에 대한 방어용으로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을 배치해 줄 것을 미군 측에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다.

합참으로서의 광주비행장이 유사시 중요 후방 공군기지 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 발발시 부산·광양항을 통한 병력의 집결지이자, 오키나와 주둔 미공군의 기착지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공군 비행장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80년 5·18을 겪으며 반미 감정이 높은 광주에 미군 부대 배치는 험난한 가시밭길이었다. 합참은 군 작전

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비밀리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광주공항에 배치할 수도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지역 여론 조성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광주지역 재야 사회·시민·노동단체 등은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

사일 배치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사일 부대 철수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패트리어트 부대 선발대 도착을 전후해 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수 천명의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했으며, 부대 배치 이후에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98차례 금요일 집회를 하고 ‘패트리어트 부대의 광주공항 철수’를 외쳐왔다.

또,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25주년을 앞둔 16일에는 일부 시민단체와 광주를 찾은 순례단과 학생들이 참여한

집회를 하고 군부대까지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반미 감정과 시위로 인해 광주공항에 주둔 중인 미군 병사들은 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오산 등 미군 기지 인근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전략상의 이유로 광주공항에서 패트리어트 부대를 철수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같은 광주지역의 반미 감정이 크게 작용해 결국 부대 철수를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2004년 11월 광주공항에 미군 패트리어트 부대 배치가 이뤄지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이 구성된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배치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는 미군 주둔에 반대해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18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패트리어트 부대 철수’ 시위를 벌여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現정권 임기내 착공 물거품

■호남고속철 건설 계획안 확정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이후 역대 대통령의 단골 공약사항이었지만 한치도 진전을 보지 못했던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안이 23일 일단 확정됐다. 그러나 오송~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을 동시 착공해 2015년 동시에 완공해달라는 광주·전남지역의 바람은 받아 들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지역민들은 호남고속철도 문제가 역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약사항으로 제시됐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미뤄져왔다는 점을 들어 노무현 정권 임기안에 착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안에는 2009년 3월 착공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마저도 무산됐다.

정부의 호남고속철건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9년 오송~광주 구간 공사에 들어가 2015년 개통할 예정이다. 광주~목포 구간은 오송~익산 구간 완공 전에 착공해 2017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경제계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전남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등이 2015년께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호남고속철 전 구간의 동시 착공·동시 완공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광주~목포’ 구간이 2017년 완공으로 기대 보다 늦춰짐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급변하는 개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SOC 부족으로 인한 타 지역과의 불균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이전정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철도복선 건설의 경우 경부선은 1945년에 이뤄진 반면, 호남선은 2004년에 이뤄져 59년 차이가 나고 ▲4차선 고속도로 건설은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호남고속도로가 1987년 완공돼 17년차를 보이고 있으며 ▲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서울~대구)가 2004년 개통됐지만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 예정으로 11년 차이나 난 데다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으로 13년 차이가 나 지역간 불균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호남 고속철 건설 문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지난 1990년 국토연구원의 ‘호남선 고속전철화 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인 시발이 됐다. 이후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공약사항으로 등장했지만 역시 이번 노무현 정권에서도 착공만큼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지역민, 특히 전남도민들은 호남선 복선화 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연기됐던 점에 비해 광주~목포 구간의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할 경우 아예 추진되지 않을 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5·31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남광주·정읍 등 호남고속철 2개 정차역 신설 계획은 선선선 논란과 함께 고속철의 기능 저하를 우려한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송~광주 구간 2009년 첫 삽
2015년 새구간 동시 완공 무산
지역민 “지역간 불균형 가속화”**

광주시민 60% “지하철 2·3호선 조기착공 필요”

“1호선 나주·화순 연장해야”

광주 시민 대부분이 광주지하철 2·3호선의 조기 착공과 기존 1호선 노선을 나주·화순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지하철 운영은 수익성을 올리기 보다는 공공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가 지난 7월13일~17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일반 시민 750명과 지하철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지하철 및 대중교통체계’ 설문 조사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자의 84.8%, 일반 시민의 60.4%가 2·3호선 등 추가 노선의 조기 착공을 원했으며, 지하철 이용자의 84.8%와 일반 시민 71.2%는 현재 1호선을 나주에 건설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화순까지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하철의 운영적자로 인한 2호선의 착공시기

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 37.8%, 지하철 이용자 19.7%만 찬성한 반면, 일반 시민 51.1%, 지하철 이용자 65.5%가 반대했다.

지하철 운영시 수익성과 공공성 중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이용자 87.1%, 일반 시민 75.1%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해 지하철을 경제는 리보다는 사회기반시설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지하철 운영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임수송(경로자, 장애인, 유공자 등) 비용 보전은 지하철 이용자의 93%, 일반 시민의 90.5%가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의 55%가 버스 요금 수준의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41%)에 비해 14% 더 높았다. 반면 지하철 이용자들은 찬성(29.5%) 의견보다 반대(63.6%)가 훨씬 높았다. 오행원 사장은 “지하철 추가노선 건설과 무임수송비용 정부보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혹시 박시장 발언 영향 끼쳤나?

광주공항 주둔 미군 패트리어트 부대가 광주를 떠나기로 한 것은 광주의 반미정서 외에 미군의 한반도 방어전략에 모종의 변화가 발생한 것 때문으로 추정되고있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에서는 박광태 광주시장이 지난 지난해 11월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모욕적인 검색을 당한 후 “광주에 있는 미군 부대를 쫓아내버리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혹시 미군부대 철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말도 무성하다.

▲한반도 방어전략 달라졌다=주한 미국대사관과 국내 군사전문가들에 따

美 패트리어트 부대 철수 배경 놓고 뒷말 무성

르면 최근 남북한의 밀착관계로 인해 주한 미군의 대북 방어전략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즉 광주지역에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날아들 가능성 보다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명종률을 자랑하는 패트리어트3 미사일부대는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해야 일본 남부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 패트리어트 방공부대장 블랙 중령

은 최근 한 인사로 부터 이같은 질문을 받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박시장 “쫓아낸다” 발언 영향미쳤다=박시장이 봉변에 가까운 검색을 당한 후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외신을 타고 세계로 전해졌다. 만약 미군 주둔지 자치단체장이 미군부대 추방운동에 나선다면 미국으로선 대외적 위신이 크게 추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은 박시장을 귀국하 직접 사람을 보내 미 공방당

국의 무례를 공식 사과했으며 박시장도 “감정이 격해서 한 말이었다”고 양해했다. 결국 이문제는 광주 패트리어트 부대 철수의 직접 원인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러나 미국으로선 그렇지 않아도 반미정서가 높은 지역에서 시장마저 그러한 발언을 한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부산에선 미군부대 유치활동=광주에서의 반미·미군철수 주장과 달리 부산에서는 지난해부터 외교경로를 통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의 지역유치를 강력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부산시는 미군 미사일 부대가 올 경우 토지사용 외에 경비·운영·청소·식품공급 등에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해왔다. 이는 고스란히 지역 고용증대와 소득증가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만 한때의 행복이 평생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주인을 만나다

신앙파크 호텔은 세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For your happiness...

행복한 순간,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고객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앙파크 호텔에서는, 언제나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최선으로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예약문의

☎ 02-6200-1111 (24시간)

☎ 02-6200-1112 (24시간)

☎ 02-6200-1113 (24시간)

☎ 02-6200-1114 (24시간)

☎ 02-6200-1115 (24시간)

☎ 02-6200-1116 (24시간)

신앙파크 호텔 스페셜 패키지

신앙파크 호텔 스페셜 패키지